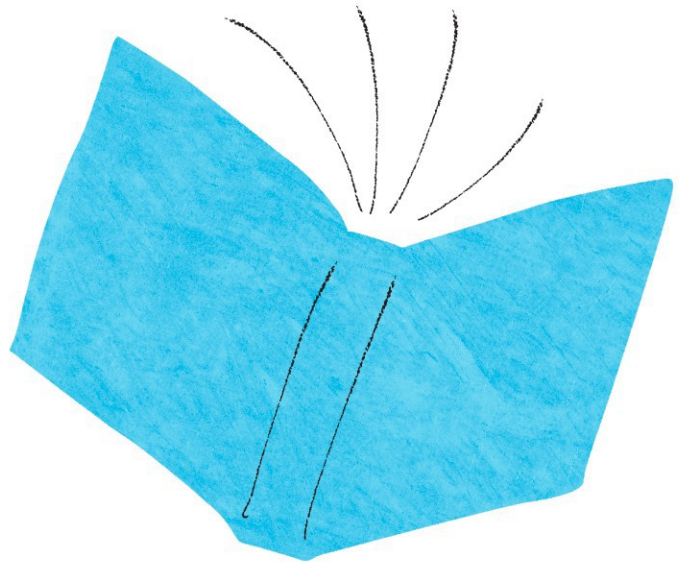


2019  
비상교육 교과서  
나눔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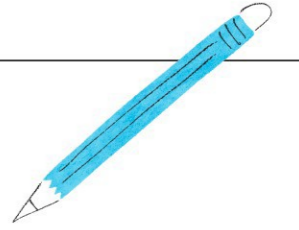


본 표지는 이양초등학교 1학년 이순우 할머니가  
손수 싸주신 손글씨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 비상교육교과서가 세상에 활수있게 있는 것



# 교과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교실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에게 숙제를 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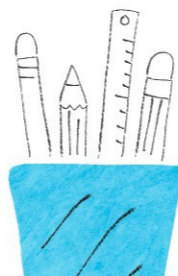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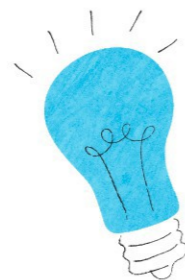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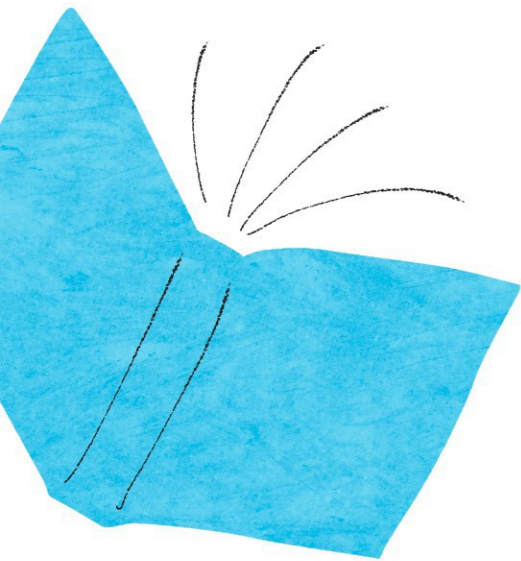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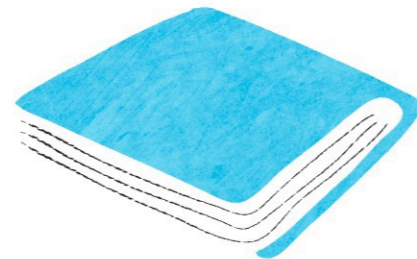
초등학교 4학년

“책은 일을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혹시 이거, 시험 문제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 비상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2019  
비상교육 교과서  
나눔백서



4 P

프롤로그.  
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16 P

하나.  
책으로  
세상의 마음을  
잇는 일

28 P

둘.  
꿈으로  
교육의 미래를  
엮는 일

42 P

셋.  
나눔으로  
가르침의 힘을  
만드는 일

52 P

넷.  
만남으로  
학교의 행복을  
키우는 일

62 P

교과서 속  
따뜻한 세상 이야기

74 P

에필로그.  
비상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국어 교과서가



#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 바로 소통이에요. 그 소통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언어죠. 국어 교과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언어의 기본을 담고 있어요. **언어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국어는 '이야기'를 담은 과목이에요. 아이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국어 교과서. **아이들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확장시키는 가장 좋은 가이드북이에요.**

치열한 세상 속 독립투사가 되었다가, 연인을 잃은 여인이었다가, 10살 꼬마가 되어 키 큰 어른을 꿀탕 먹일 수 있는 경험. 독서가 주는 천의 삶이죠.

아이들은 독서를 통해 **다른 이의 삶에 공감하고,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배워 나갑니다.**

세상과 나의 삶을 이어주는 것, 바로 국어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모든 작업 속에 국어가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전 과정을 국어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그런 국어 교과서를 더 건강하게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이죠.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자  
조명현, 황진실, 김연희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디자이너  
김경희, 강윤정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진  
박안수, 김진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품질 담당자  
김진우, 김재현





# 수학 교과서가

#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수포자라는 말, 이전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수학은 가까이하기엔 참 어려운 과목이지요.

하지만 수학만의 가장 큰 매력이 있어요.  
바로 명확한 답이 있다는 것.  
정해진 공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과정을 밟아나가면,  
반드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수학은 아이들에게 **하나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단계별 여정을 알려주는 과목이에요.**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라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답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며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맛있는 간식을 사먹기 위해 돈을 내고,  
좋아하는 야구 선수의 승률을 계산해보기도 하지요.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 수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숫자로 시작하여 통계에 이르기까지,  
**수학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셈'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알찬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수학은 **사고의 확장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이에요.**

다양한 과목과 연결되는 수학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교과서의 각 페이지를  
고민하며 디자인해요.

하나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활동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수학 교과서!  
동화책, 게임 설명서, 때론 일기장 같은  
수학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요.

숫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눗셈을 하며 배려를 배우고, 통계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주와의 거리를 계산하며  
새로운 세상을 엿니다.

수학은 단순히 계산하는 활동이 아니라 **성공적인  
도전과 낯선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수학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즐거운 공식을 선사해줄 것이라 믿어요.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개발자  
김정현, 석경배, 박선영

중학교 수학 교과서 집필진  
김원경, 오혜정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디자이너  
정세연, 박태우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집필진  
김기탁, 배수경



# 과학 교과서가

#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아이들은 오늘도 '과학'적인 일을 했어요.  
친구들과 달리기를 했고, 잘 조리된 밥을 먹었으며,  
화장실에도 가고, 휴대폰으로 게임도 했지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만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의 24시간이 모두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요.  
**두려움을 깨고 과학적 사고로 한 뼘 더 성장시키는 일,**  
교과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를  
간결하고 재미있게 한 데 담은 책이 바로  
과학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과학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은 발견의 기쁨과  
발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힘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더욱 상상력을 자극하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로 채워나가는  
교과서를 디자인하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엔 로봇이 청소를 하고,  
집집마다 필요할 때 꺼내어 볼 수 있는  
접이식 TV가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이미 우리 눈앞에 등장했죠.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성으로의 여행, 외계인과의 대화,  
혹은 죽지 않는 약을 개발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과학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 미래를 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과학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고쳐주고,  
위험한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공부.**  
과학만큼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과목이 있을까요?

중학교 과학 교과서 개발자  
나누리, 양승우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디자이너  
안상현, 김지수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물리학·지구과학 교과서 집필진  
임태훈, 손정우, 이기영

중·고등학교 과학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개발자  
박나형





# 사회, 역사 교과서가



#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전수정

이민영

유지인

이수현

홍영선

이병인

박병기

이민형

정하나



우리가 밟아온 시간의 자취를 공부하는 것  
어쩌면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고,  
다시 미래를 꿈꾸게 되죠.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역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자산이 되어줄 겁니다.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역사 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사회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지역, 음식, 문화, 돈, 정치, 법, 도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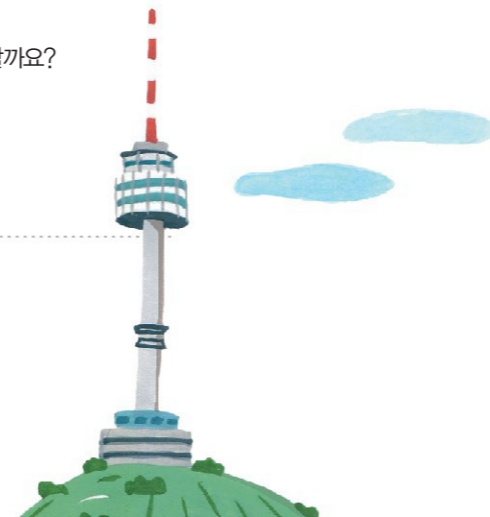
사회 교과서는 이런 방대한 '사회'라는 개념 속에서  
**'나의 역할과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국민, 가족의 일원, 학생 혹은 친구로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 열린 답을 알려줘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사회 교과서는 늘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개발자, 디자이너  
전수정, 이민영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개발자, 디자이너  
유지인, 이수현, 홍영선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를 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사회의 모습, 이상적인 사회의 역할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앞으로 이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작은 영웅을 키워나가는 일,**  
사회 교과서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진  
이병인, 박병기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이고, 내가 경험하는 사회는 일부뿐이기에  
아이들이 생생하게 사회, 역사를 배우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VR 체험관이에요.  
땅끝 마을도 눈앞에서 밟아볼 수 있고, 과거로 회귀하여  
신미양요 현장을 실감나게 만나볼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교과서의 또 다른 과제 같아요.

중·고등학교 역사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개발자  
이민형, 정하나





# 영어 교과서가

#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완

이윤희

홍민표

조금희

이현정

이지운

김세희

최윤석

주여정



영어는 이제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나의 의견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보다는 또 다른 언어로 나를 '표현'하는 데 즐거움을 가지면 좋겠어요.

영어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요.**

언어에 숨겨진 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해외 사이트를 검색하며 실시간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뻘한 이야기 같지만, 언어를 통해 문화를 관통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방대하고 매력적이죠.

중학교 영어 교과서 집필진  
김진완, 이윤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집필진  
홍민표, 조금희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해외를 직접 경험해볼 수도 있고, 학원에 다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교과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영어를 통해 자신의 길을 열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늘 연구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개발자  
이현정, 이지운, 김세희, 주여정

영어 교과서를 디자인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친근감'이에요.

학생들이 **낯선 영어를 이미지를 통해 더 잘 이해**하고, 한번쯤 낯선 문화를 경험하고 싶도록 페이지를 구상해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교과서를 디자인할 거예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디자이너  
최윤석





# 음악, 미술, 체육 교과서가

#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하는 활동이 예체능 활동이에요.  
**오감을 자극하여 창의력 넘치고**  
**감각적인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신나게 춤추고, 마음 가는 대로 붓을 놀리는 시간 속에 아이들의 잠재력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음악, 미술, 체육이 주는 다채로운 레시피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날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디자이너가 된 이유는, 어릴 적 우연히 그린 그림으로 저의 개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만의 아이디어가 큰 성취감을 가져다주었죠.  
 또 학창 시절 접하게 된 아름다운 그림 작품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다양한 아름다움과 도전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생활을 똑똑하게 만드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삶을 즐겁게 만드는 과목도 있어요. 바로 음악, 미술, 체육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학창 시절, 예체능 과목은 **아이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페이스 메이커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음악, 미술, 체육은 긴 숙련의 과정이 필요한 과목들이에요.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 발레리나가 무대에 서기 위해, 멋진 유화 작품을 그리기 위해 적어도 수년의 연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은 즐기는 것은 쉽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땀을 흘려야만 해요.  
**긴 호흡으로 목표를 완성해 가는 성취감, 인내로 쌓아 가는 아름다움의 기적, 예체능 과목이 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초·중·고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교과서 개발자  
**홍정혜, 송윤정, 최다솜, 노연교**

중학교 음악, 미술, 체육 교과서 디자이너  
**박광수**



초등학교 음악, 체육 교과서 집필진  
**조순이, 이경원**

중학교 음악,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집필진  
**주대창, 현영호**





하나.

책으로  
세상의 마음을  
잇는 일

비상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비상교육은 96,847,166부의 교과서를 발행하였으며,  
전국 9,666개의 학교가 비상교육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의 질을 제공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같은 속도와 깊이로 공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외 계층의  
학생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상교육은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속도를 고려하여  
수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에  
교과서와 더불어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2005년부터 13년 이상 비상교육이 지원한 수업 교재는 지금까지  
88만여 권으로 그 비용은 105억 원이 넘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두드립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비상교육은 학생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발판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710g의 책 한 권이 전하는 긍정의 힘,  
비상교육이 만드는 공교육의 가치입니다.

## 비상교육 수업 교재 지원

## 710g의 책 한 권이 전하는 긍정의 힘



66 교과서와 교재를 기부하는 일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교육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나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나 환경, 개인의 성향, 학습 속도 등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나눔을 이어가고 싶어요.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데 보통 2년이 걸립니다. 비상교육 전문가들이 열심히 개발한 교과서와 교재가 전국의 학생들에게 든든한 응원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출판사업부문 대표 최대찬 99



## 비상교육 저시력 확대 교과서, 점자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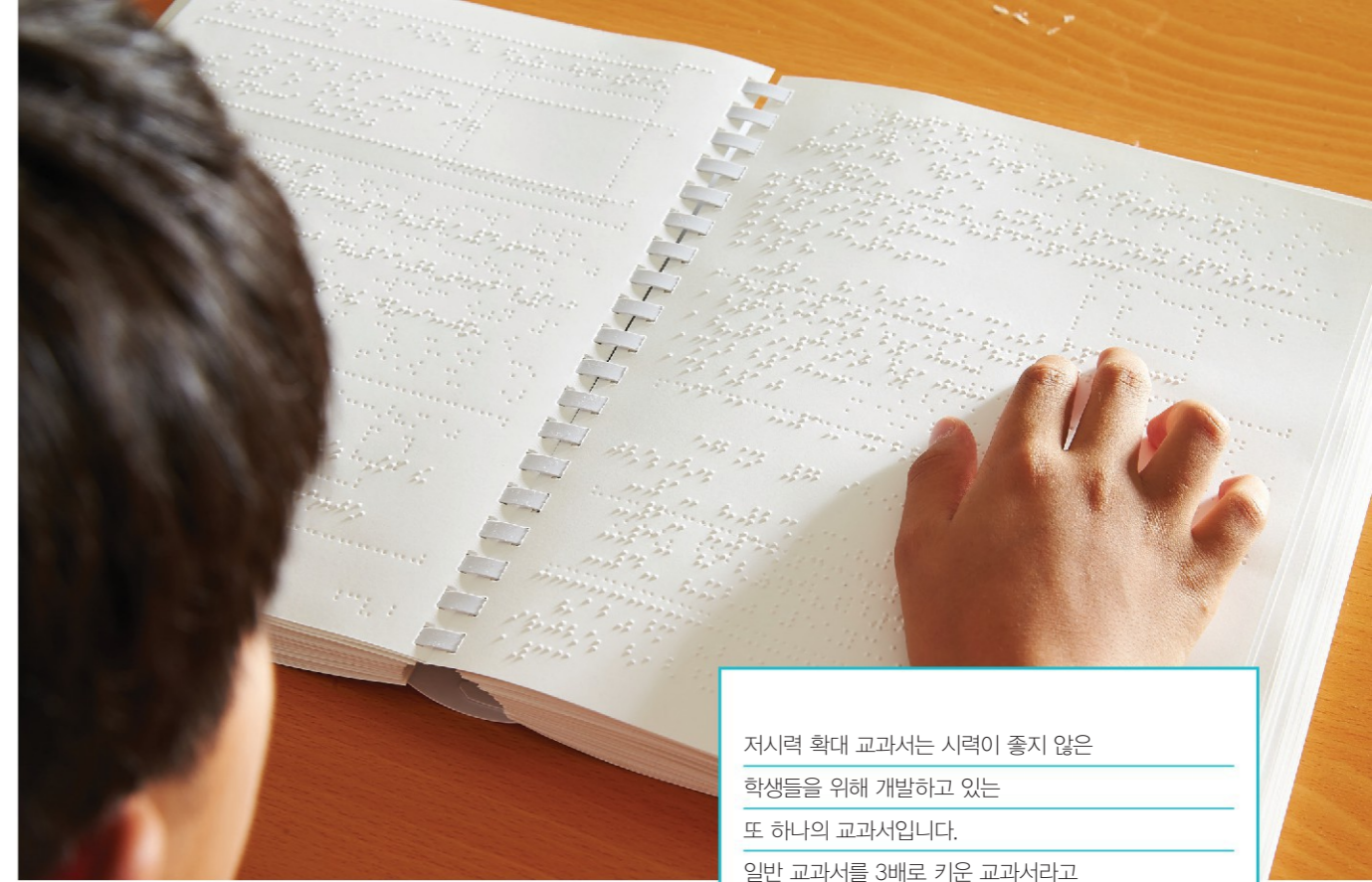
## 마음으로 읽는 책이 도착했습니다.

마음으로 글을 읽는 전국의 학생들은 총 1,400여 명.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조금 느리지만 더욱 단단하고 깊게 글 속에 담긴 뜻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2014년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저시력 확대 교과서 및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어렵고 찾는 이도 많지 않은 이런 특별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비상교육이 실천하고 있는 나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점자 교과서는 시각 장애를 가진 출판 전문가들과 함께 일반 교과서를 점자로 변환하여 완성합니다. 한 땀 한 땀 실수 없이 타이핑하여 1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 6개월. 한 학생의 꿈이 만들어지는 소중한 과정임을 고려한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비상교육은 생각합니다.

학교에 첫 발을 디딘 초등학생부터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까지, 비상교육은 전 교육과정에 걸쳐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세상 속 이야기를 마음으로 읽는 학생들을 위해,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교과서를 꿈꿉니다.



저시력 확대 교과서는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일반 교과서를 3배로 키운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와 모든 글자를 일일이 확대시켜 편집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작은 동그라미를 통해 세상을 접한다고 해요. 저는 학생들이 가진 동그라미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초등학교 국정 과학 교과서 디자이너  
김은희

초등학교 과학 3-1



초등학교 과학 3-1 저시력 확대 교과서





## 해외 한국학교 학습 교재 지원 사업

소주한국학교는 교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중국에 11번째로 설립된 한국학교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30~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곳은, 수업에 필요한 한국 학습 교재가 늘 부족합니다.

비상교육은 2014년 중국 소주한국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 및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간 비상교육이 후원한 학생들은 총 240여 명. 1학년에 입학하며 비상교육과 만난 학생이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비상교육이 후원한 졸업생도 총 25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상교육은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해외 한국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주한국학교 외에도 광저우한국학교 등 비상교육과 MOU를 맺은 해외 학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 자녀들이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후원자, 비상교육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 비상교육 아저씨!

## 내년에도 또 감사합니다.



### 중국 소주한국학교에서 온 초등학생들의 손편지 (2017)



66

중국 소주한국학교에서는 매년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한 학습 교재 전수식 사진을 보내주세요.

2017년에는 특별히 또박또박 예쁘게 씌어진 35명 학생들의 손편지가 도착했는데요. "비상교육 아저씨! 내년에도 꼭 책을 보내주세요!"라며 시험을 잘 봤다는 자랑도 함께 담았더라고요.

책의 높이만큼 한 뼘씩 자라는 아이들의 즐거운 공부를 응원합니다.

교과서 사업 운영 담당자  
공아름

99





## 세계시민교육연구소 네팔 국제교육 자원 활동

세계시민교육연구소는 국제 교육자원 활동을 펼치는 교사들로 구성된 NGO 단체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한 세계 곳곳의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세계시민교육연구소와 함께 네팔 산간 지역인 듀피수르케, 부싱가 두 곳의 학교에 교육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량으로 10시간, 도보로 13시간을 이동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오지로, 2015년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지진의 상처가 남아 있고 건물도 채 보수되지 못했지만, 50여 명의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걸어 학교에 도착합니다.

선생님들은 한국에서 가져간 교재와 교구를 활용하여 네팔 선생님들과 합동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교구재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장난감이 되고, 현지에 전파하는 한국의 교육 방법도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거머리의 위협을 뚫고 도착한 천사들의 학교, 당나귀로 운반되는 작은 짐과 23시간에 걸친 선생님들의 여정은 네팔 오지 아이들의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하는 교육의 힘, 비상교육이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네팔 천사들을 만나기 위한

## 23시간의 여정



매년 여름 방학이 되면 네팔 천사들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가장 괴로운 건 예쁜 꽃마다 숨어 있는  
거머리들이에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네팔 아이들은 흙탕물에 젖어 가며  
수업을 받으러 옵니다.

이 아이들이 네팔을 더욱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건  
로켓 교구와 과학책이었어요.  
올해도 즐거운 수업을 선물하기 위해  
길을 떠날 예정입니다.

비상교육 중학교 과학 교과서 집필진  
강대훈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10%인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언어 장벽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중 절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광고 기획사인 제일기획은 이런 탈북 학생들을 위해 2014년 '글동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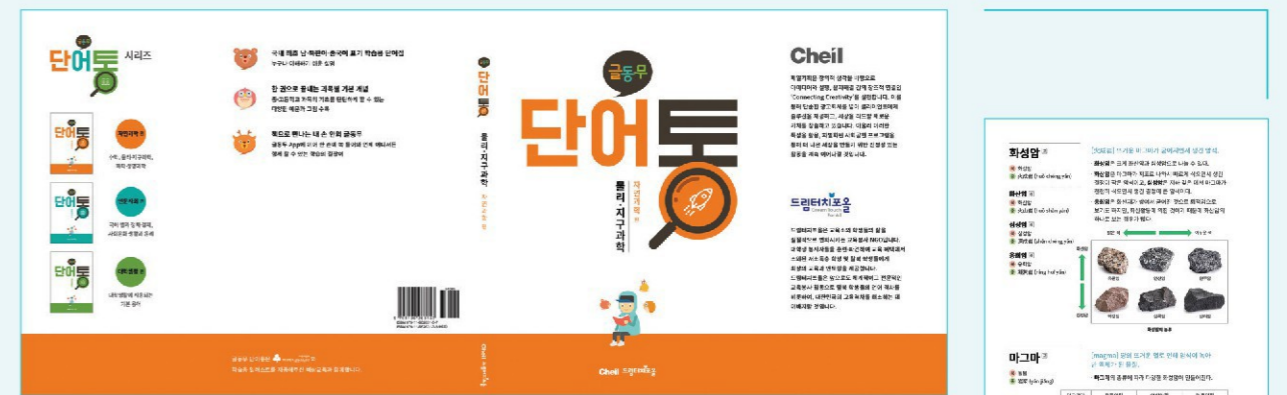
'글동무 단어통'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룬 내용을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학교 수업을 위한 번역책으로 교과서 콘텐츠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발됩니다. 비상교육은 교과서 전문 발행사로 단어통 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과목별 교과서 자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단어통은 수학, 과학을 담은 자연과학 편과 국어, 사회, 도덕을 담은 인문사회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과목별 기본 개념 안내부터 복습 코너까지 한 손에 쥌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 탈북 학생들이 수시로 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어통은 탈북 대안학교 및 일반 중·고등학교, 관련 기관 등 100여 곳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해소하고, 학생 모두가 같은 높이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상교육이 숨은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글동무 단어통 개발 지원

#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66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탈북 학생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려운 유리 천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과목과 주제로 이런 든든한 사전이 꾸준히 탄생하길 바라요.  
언어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교과서에 더 많은 고민을 담겠습니다.

교과서 창의 융합 콘텐츠 기획자  
유지명





05.

꿈으로  
교육의 미래를  
여는 일

비상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 초등학교 수업 연구 지원(1)

### 수학 모형 교과서 개발

과자를 사 먹고, 체중을 재고, 내 생일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하는 일.....  
이처럼 수학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수학.  
이제는 사전에도 등장하는 '수포자'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수학에 대한 공포심과 거부감을 줄이고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상교육 수학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 고민의 열쇠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수학은 하나의 개념을 바탕으로 순차적인 응용을 통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목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단계별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상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해보며 수학적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새로운 모형의  
수학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수학 교과서의 이름은 '수학이 정말 좋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용기에 물을 채워보고, 책 속 냉장고에 들어 있는  
음료수를 살펴보고, 1L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들이의 개념을 익힌 후에는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덧셈과 뺄셈을 연습합니다.



4일간의 시범 수업 이후 학생들이 붙인 이 책의 다른 이름은 '수학이랑 놀자',  
'나의 친구 수학', '신기한 수학'입니다. 미래형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 친구를 만들어 주는 데 걸린 시간은 8시간, 선생님을 포함한 10명의  
연구진과 150일의 개발 작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수학이 더 큰 꿈을 열 수 있도록, 비상교육의 이상적인 도전은 계속됩니다.



저는 25년간 수학 교과서와 교재 개발을 해왔어요.  
저에게도 아직 수학은 어려워요,  
하지만 두렵진 않죠. 그건 수학이 주는  
즐거움 때문이에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나이가  
10살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 나이에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된다면 그 후 10년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많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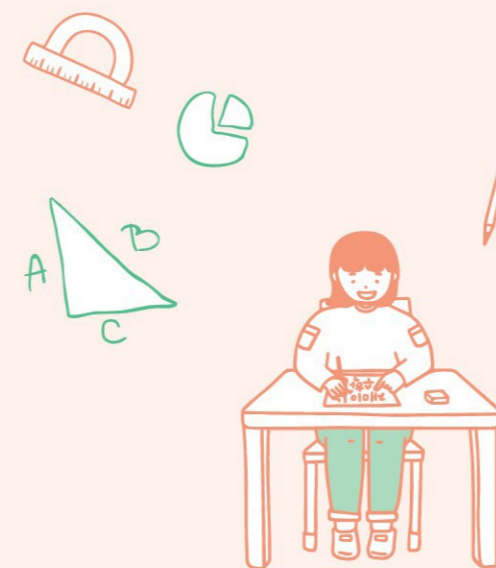
언젠가 제가 만든 미래형 교과서가  
전국의 학생들에게  
기적 같은 즐거움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수학 모형 교과서 개발자  
김윤희, 윤해련



## 8시간의 기적을 만드는 교과서

### “수학이 정말 좋아”





## 초등학교 수업 연구 지원(2)

### 미래형 주제중심 교과서 개발

태극기는 어떤 과목에서 공부할까요? 태극기의 역사를 탐구하는 역사, 태극기를 직접 그려보는 미술, 태극기의 숨은 뜻을 알아보는 국어와 한문, 국기의 역할을 배우는 사회, 국기 제작을 위한 수치를 탐구하는 수학, 세계의 국기를 해석하는 영어..... 이외에도 다양한 과목이 '태극기'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과목을 연계하는 창의 융합 수업.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긴 호흡으로 학습하며 사고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상적인 수업 형태입니다. 비상교육은 앞선 생각을 가진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기존의 교과서 체제를 벗어나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주제를 학습할 수 있는 미래형 주제중심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미래형 주제중심 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삶과 맞닿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대한민국과 통일, 우리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2학년은 가족과 다양한 민족을 학습합니다. 3학년은 '옛날 사람들'을 주제로 우리의 역사와 민속을 체험하고, 4학년은 생물과 환경에 대해 배웁니다. 5학년은 경제의 각 분야를 재미있는 과제와 활동으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6학년은 생태계와 사회 전반을 총괄적으로 다룬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세계의 지형과 나라별 특성을 담은 '응답하라, 지구별'을 함께 공부합니다.

비상교육은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총 138책의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현재의 교과서가 학생들의 미래를 열듯, 주제중심 교과서는 미래의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과서 제목은 어떨까요? '내가 만드는 교과서'. 비상교육은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를 꿈꿉니다.

##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 어떤 과목을 배울까요?



## 비상교육 미래형 주제중심 교과서



66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는 흑백이었어요. 지금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화려한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활동과 과제를 담고 있지요.

그렇다면 미래의 교과서는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 현재의 교과서가 더 친절해졌다면 미래의 교과서는 더 포용력 있고 똑똑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5개월간 선생님들과 교과서를 만들며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잠시였지만 시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미소도 만났습니다.

언젠가 학교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교과서가 되길 바라요!

초등학교 미래형 주제중심  
교과서 개발자  
최영주 99





비상교육은 2016년부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 본사를 방문한 학생들은 비상교육 사업을 둘러보고, 출판 기획자와 함께 교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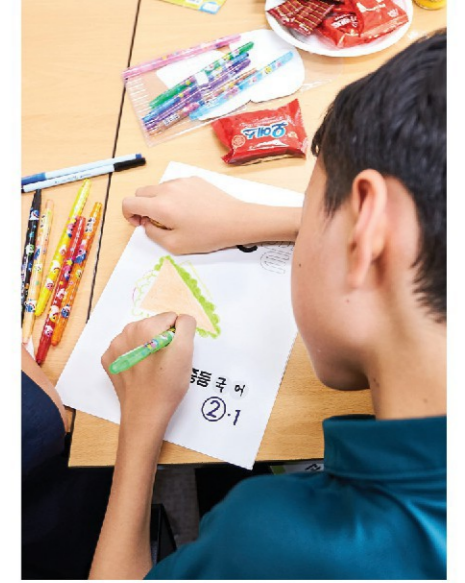
또한 비상교육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의 직업인들을 만나 생생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출판 기획자, 마케팅 전문가, 사진 촬영 전문가, 인사 기획자, 북 디자이너, 웹 기획자, IT 개발자, 유아 서비스 기획자 등 실제 비상교육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비상교육을 방문한 학생들은 총 500여 명.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교재 디자인과 사진 작품, 그리고 진솔한 후기는 비상교육의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꾸려갈 수 있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그 과정 속에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얻습니다.

학생들은 단지 책을 만드는 비상교육이 아닌 다채로운 직군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교육 문화 기업으로서의 비상교육을 새롭게 만납니다. 교육과 학생들의 꿈을 잇는 한 걸음이 더욱 즐거울 수 있도록, 비상교육이 열린 다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비상교육 직장 체험 프로그램

## 700인의 비상인이 잇는 우리 아이들의 꿈길



비상교육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직업인 멘토링 활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만나기 힘든 전문 직업인을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직업 소개도 하고  
궁금해하는 점도 해소해줘요.

요즘은 웹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언젠가 저와 인터뷰한 학생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정말 신기하고 뿌듯할 것 같아요!

교과서 사이트 운영자  
한은희





## 출판·인쇄 관련 학생 장학금 및 현장 실습

양질의 교과서와 교재는 과정부터 인쇄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탄생합니다. 교육 산업의 발전에 따라 출판·인쇄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 학과도 대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년간 전공 수업을 통해 풍성한 이론 지식을 습득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 출판·인쇄 전문가의 꿈이

비상교육은 출판·인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매년 대학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금까지 1억여 원에 이릅니다. 또한 매년 2회 방학 기간마다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 교육 기업에서 실무와 전문가의 노하우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 비상 飛上 합니다.

출판 기획자, 인쇄 전문가, 북 디자이너, 출판 마케팅 전문가,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 등 출판·인쇄 분야의 직업군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질 높은 전문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꼼꼼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과 직업군을 탐색하고, 2개월간 자신의 멘토와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사회인이 되기 위한 정보를 얻습니다.

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현재 비상교육이 후원하는 대학은 총 6개로 앞으로 더 많은 대학과 인연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비상교육을 거쳐 간 30여 명의 연수생들 중 현재 비상교육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학생도 있습니다. 비상(飛上)하는 청춘을 위한 비상(非常)한 날개, 비상교육이 만들고 있는 든든한 미래입니다.



2016년 비상교육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광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당시 선배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며 저를 설레게 하는 일을 발견한 거죠.

좋은 인연으로 지금 비상교육에서 출판 광고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업무에 뛰어들어보니 더욱 재미있고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연수생들을 만나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후배들을 위해 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출판 광고 디자이너  
김예슬





## 라오스 과학교육 교사 교육역량 강화와 국제교육자원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2018년 라오스 반곤 사범대학교 교수진이 비상교육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연구소가 지원하는 '라오스 과학교육 교사 교육역량 강화와 국제교육자원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교육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비상교육은 라오스 반곤 사범대학교 교수진을 대상으로 교과서 및 디지털 교과서를 소개하고, 실험을 통해 초등학교 과학 수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통형 수업 방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유·초등용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시연하였습니다. 라오스 방문단은 비상교육을 통해 접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질문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여는 수업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비상교육은 세계시민교육연구소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초등 과학 국정 교과서 발행자로서 라오스의 과학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자리였다는 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먼 나라를 찾아준 라오스 교수진을 통해 국경을 넘는 교육의 힘을 다시 발견합니다. 타국으로부터 교육 수혜를 받은 한국이 이제 교육의 즐거움으로 나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 비상교육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 한국에서 배워갑니다.



66

라오스에는 교육 연구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교수법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상교육에서 직접 수업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실험을 통해 물체의 질량, 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라오스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꼭 수업해보려고 해요.

세계시민교육연구소를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인연을 만들어갔으면 해요.

라오스 반곤 사범대학교 총장  
소사마봉 Chanthamala Southamavong

99



'재우쌤의 인도원정대'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자 창의 융합 수업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재우 선생님이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와 교육 결연을 맺으며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겨울, 전국에서 자원한 선생님들과 인도 곳곳의 교육 환경을 살펴보고,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뉴델리에 위치한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는 인도 최고 명문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1976년 학교 내 한국어 자격증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된 후, 남아시아 최초의 한국어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배출하였습니다. 한국어학과(학부)는 1995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일본·한국·동북어학과'에서 단일 학과로 독립하였고, 현재는 9명의 교수님과 150명이 넘는 학생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 각지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수준급의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한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준별 교재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도원정대 선생님들은 수일간 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직접 한국 문화와 연계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비상교육은 인도원정대에 중·고등 국어 교과서와 교재,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 자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다채롭고 도전적인 한국의 문화, K-POP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복과 경복궁, 운동주의 문학 작품으로 이어지기까지, 비상교육이 선생님들의 따뜻한 여정에 동행합니다.

## 재우쌤의 인도원정대 \_ 네루대학교 교육 결연 활동 지원

##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 학생들 인도를 사랑하는 한국 선생님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님이신  
자야 교수님께서 비상교육에  
감사패를 보내주셨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감사패에는 한글로  
학과명이 적혀있네요!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보내주셨는데,  
한국 유학파이신 교수님의 유창한 한국말을  
들으니 몽클했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 학생들을  
멀리서라도 만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책을 넘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교과서 홍보 담당자  
김용수





셋.

나눔으로  
가르침의 힘을  
만드는 일

비상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고등학교 국어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 비바샘 교사 문화 프로그램

비상교육이 매년 공들여 기획하는 연간 활동 중 교사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다양한 주제의 문화 강좌를 제공하는 비상교육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 4월 처음 문을 연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40회, 총 2,719명의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교사 문화 프로그램의 강좌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융합해볼 수 있는 주제, 강좌 내에서 선생님들 간의 토론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앞선 주제 등을 선별하여 진행됩니다. 주제별 전문 강사들은 강좌를 듣는 선생님과 학교의 수업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강의를 준비합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선생님들은 꼼꼼하게 낯선 이론을 학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때론 학생이 되어 신나게 실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는 다시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즐거운 수업,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상상한 거름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강당 입구에는 작은 모금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참가비를 받기 위한 곳입니다. 모금함에 모인 참가비는 매년 소외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로 전액 기부됩니다. 배움의 선순환, 교사 문화 프로그램이 만들고 있는 또하나의 나눔입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 학교는 보다 다채로운 수업을 요구하고, 학생들은 보다 행복한 공부를 꿈꿉니다. 선생님의 채움은 곧 가르침의 힘이 된다는 믿음. 비상교육은 앞으로 더 많은 선생님과 소통하며 차곡차곡 채움의 시간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 2,719명의 선생님과

# 8년의 채움을 함께 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8년이 지난 지금, 프로그램이 오픈될 때마다 경쟁률이 10:1을 넘습니다. 매년 더 많은 선생님과 만나기 위해 강좌의 횟수뿐 아니라 규모도 확대하고 있어요.

해마다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과 격려 가득한 후기가 큰 힘이 됩니다.

늘 다음이 기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관찰과 경청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의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홍보 담당자  
지나윤





## 비상교육 무료 전자 도서관

비상교육은 두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사 건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국내외 서적부터 해외 교과서까지 2,000여 권의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 도서관입니다.

비상교육의 전자 도서관은 분야별 2,228종, 총 2,957권의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고전 문학부터 작가별 에세이, 외국어, 인문학 도서까지 시기별 최신의 도서를 꾸준히 구매합니다. 비상교육은 이 전자 도서관의 자료들을 학교 선생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일, 대가 없이 문을 여는 내 손 안의 도서관

융합 수업과 독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수업에 활용되는 도서의 수와 장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어린이 책부터 오디오북까지 수업에 최적화된 eBook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희망 도서를 신청받아 시기별로 추가 탑재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 전자 도서관은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겨 가며 읽는 책의 즐거움은 전자책이 주는 편리함과 결합되어, 이제 내 손 안의 도서관으로 거듭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책의 즐거움, 학교와 소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서관. 비상교육이 매일 아침 그 문을 엽니다.

## 비상교육 전자 도서관

visang.bookcube.b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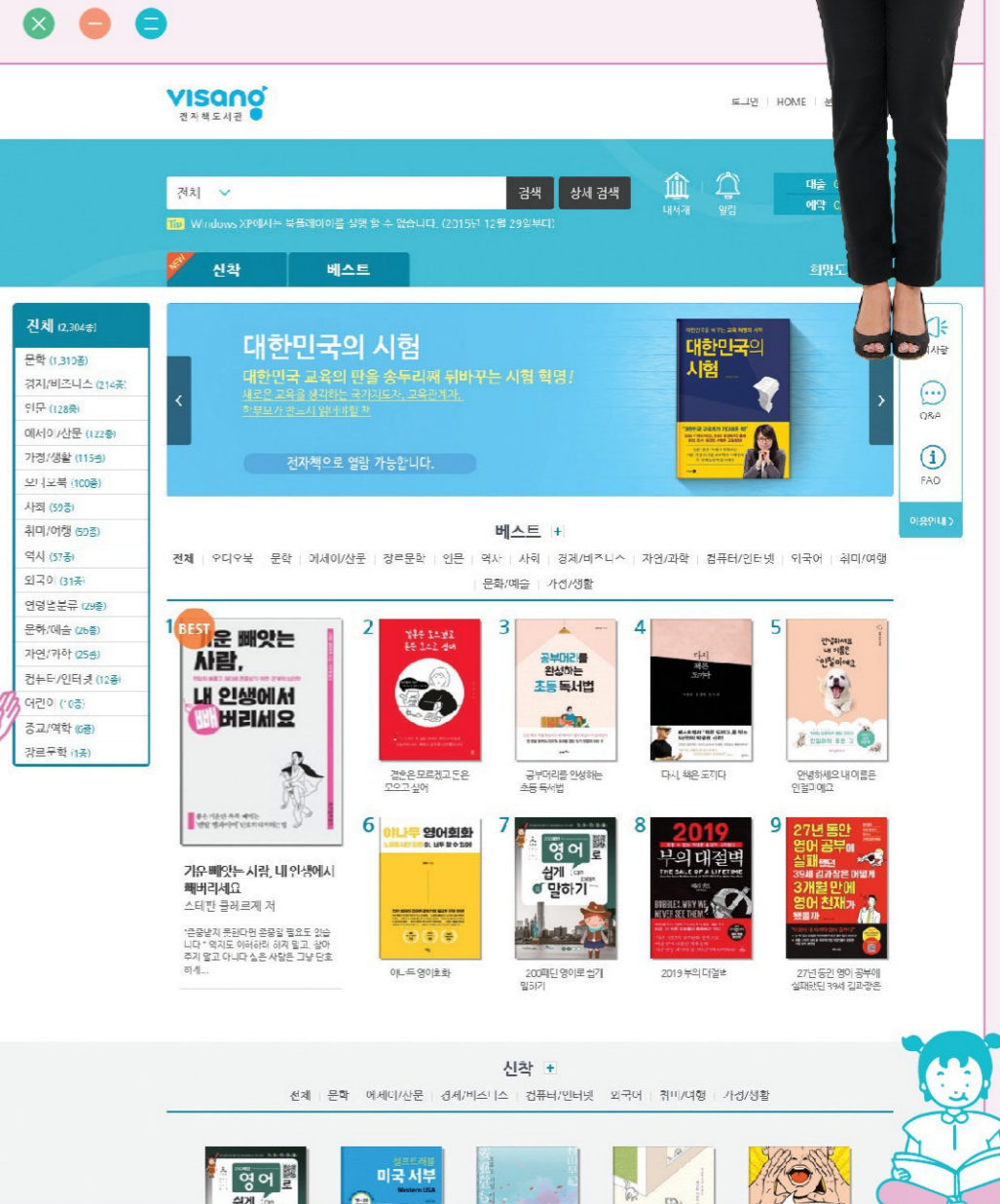
66

하루에도 수십 권씩 쏟아지는 신규 도서 중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을 선별하는 일, 선생님이 필요로 하시는 희망 도서와 해외의 참고 도서를 구매하는 일까지, 비상교육의 도서관은 늘 고요하지만 그 안의 일상은 매우 바쁩니다.

저에게 책은 친구이자 일이고, 삶을 만들어가는 자산이에요. 학생들에게도 책이 일상 속 위안과 조언을 건네는 친구이자 꿈이 되길 바라요. 제가 그런 책을 열심히 발견해볼게요!

비상교육 전자 도서관 운영자  
김혜리

99





## 비상교육 살아있는 수업 프로젝트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고, 잠들지 않는 언어로 소통하며, 차별화된 과제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어느 학교의 평범한 선생님들. 비상교육은 소리 없는 혁신을 만들고 있는 선생님들을 발굴하기 위해 '살아있는 수업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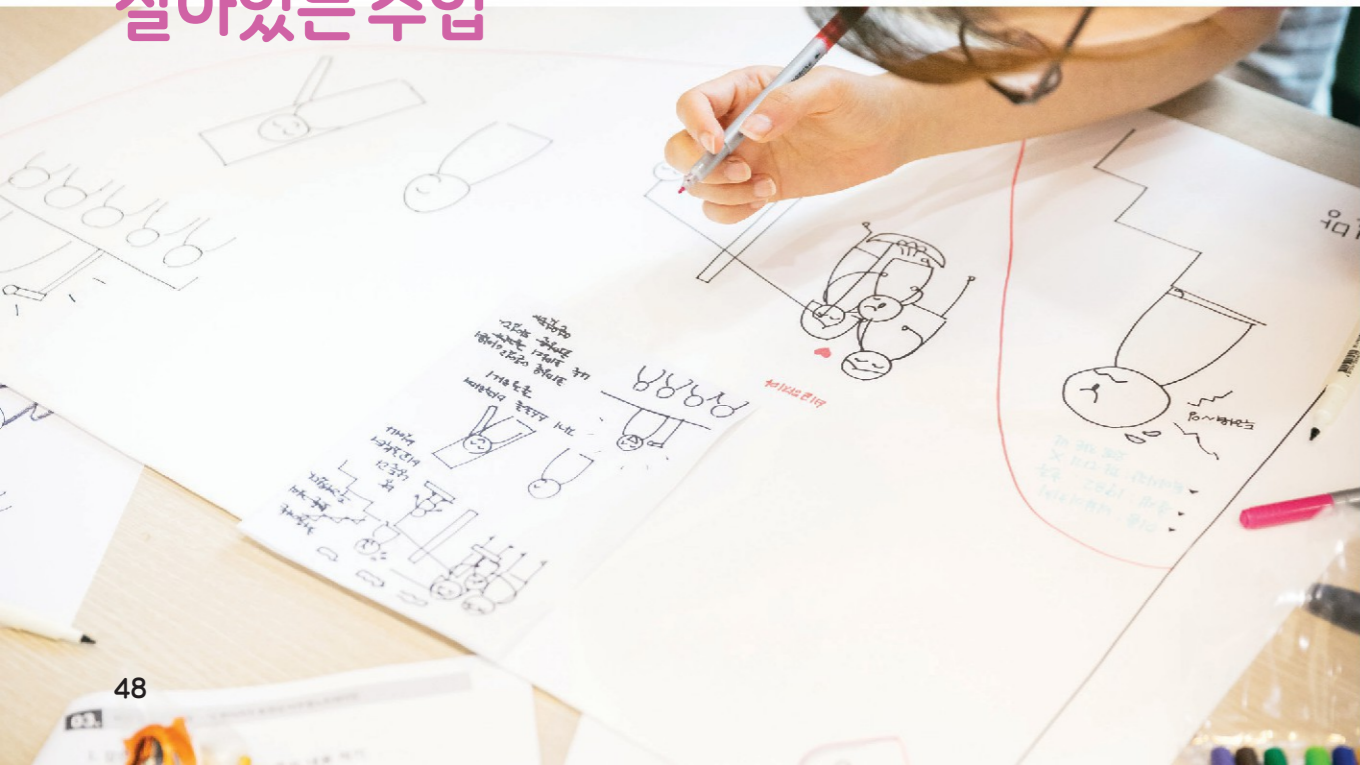
살아있는 수업 프로젝트는 주제별 멘토 선생님을 선정하고, 선생님이 직접 학교 현장에 적용했던 다채로운 수업 사례를 엮어 한 권의 가이드북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살아있는 수업을 위한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와 실제 사례들, 세부적인 멘토의 지도 팁,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자료 등이 하나로 묶여 세상에 하나뿐인 수업 자료집으로 만들어집니다.

주제별 가이드북은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인쇄물 및 온라인 자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학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주얼싱킹, 중등수업평가혁신,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까지 총 3개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국의 선생님들께 전달되었습니다.

멘토 선생님을 발굴하여 프로젝트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열정적인 선생님의 노고가 즐거운 수업으로, 다시 그 수업을 설레며 기다리는 학생들로 이어집니다.

비상교육의 새로운 백년대계, 가르침의 힘을 만드는 뜻깊은 여정입니다.

## 설레는 학생, 열정적인 선생님, 그리고 살아있는 수업



교과서는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만들고  
뛰고 경험하면서 채워가는 스케치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다채롭고  
재미있는 수업을 고민하고 있고요.

비상교육이 개발하는 살아있는 수업 자료집은  
선생님에 의한,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북이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선생님을 찾는 작업은  
어렵지만 즐거워요. 꾸준히 탄생할  
프로젝트 결과물을 기대해주세요.

교과서 개발부문 책임자  
조일현





한 권의 교과서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790일.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집필, 기획·개발, 인쇄,  
심사·선정, 수업 자료 개발, 사후 지원에 이르는 7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교과서 개발이 완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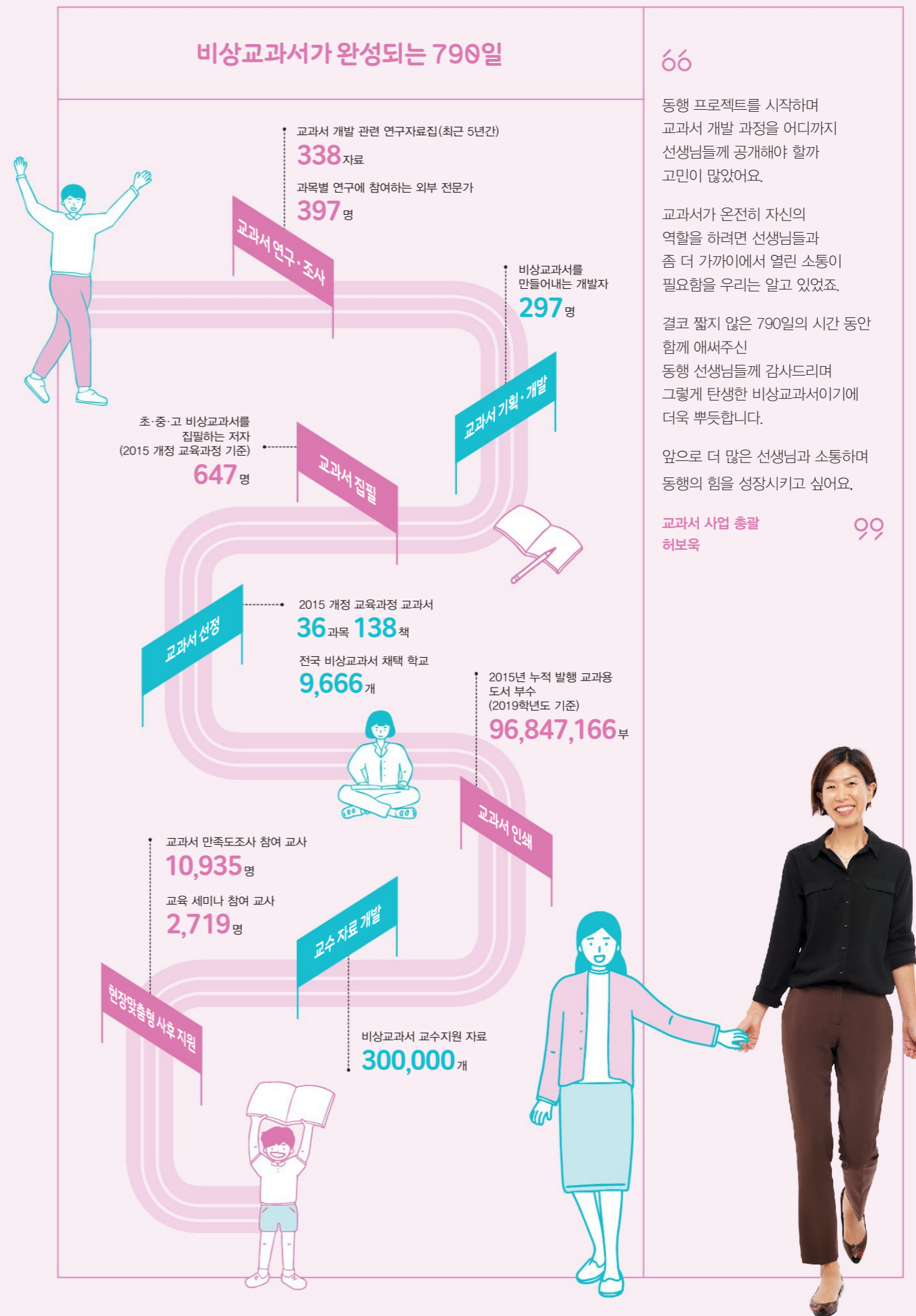
교과서 개발 과정은 발행사가 가진 특별한 역량이자 기술입니다.  
그래서 집필진을 포함하여 교과서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의 수도 제한됩니다. 전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책인  
교과서가 실제로는 가장 폐쇄적인 과정을 거쳐 개발되고 있는 셈입니다.

비상교육은 2015년 교과서 개발 과정을 모든 선생님들에게 공개하고,  
각 단계별로 선생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행 同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비상교육의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선생님과 소통하고  
각 개발 과정을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듭니다.

동행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온라인 사이트 및 특강 등을 통해  
교과서의 개발 과정을 함께 소통하며, 교과서를 한층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향을 고민합니다. 교과서와 밀착된 알찬 수업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과서,  
그 동행 同行의 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비상교육 동행同行 프로젝트

# 교과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790일간의 동행



66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교과서 개발 과정을 어디까지 선생님들께 공개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교과서가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려면 선생님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열린 소통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결코 짧지 않은 790일의 시간 동안 함께 애써주신 동행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탄생한 비상교과서이기에 더욱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생님과 소통하며 동행의 힘을 성장시키고 싶어요.

교과서 사업 총괄 허보욱 99



넷.

만남으로  
학교의 행복을  
키우는 일

비상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 비바샘 학교 촬영 캠페인

## 하루 2번 배가 뜨는 곳으로

## 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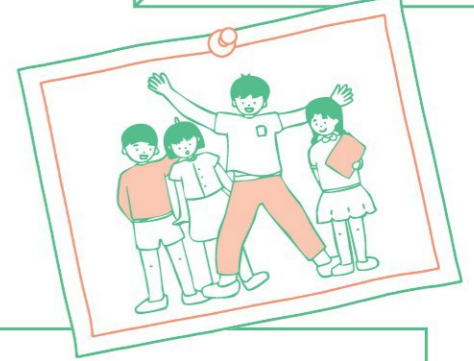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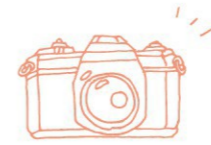
비바샘은 2016년부터 매년 가을 학교 촬영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연을 올려주시면 매년 일정 수의 학교를 선정하여 비상교육 사진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합니다.

졸업 사진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 도서 지역의 학교, 다문화 및 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선생님, 아픈 친구를 돕는 착한 천사들이 있는 반, 퇴임을 앞둔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들, 조금 천천히 크는 아이들과 선생님, 힘찬 응원이 필요한 축구부 친구들까지..... 총 999개의 사연 중 지금까지 80개의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비상교육 사진 전문가는 학교 안팎을 돌며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색다른 그 날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촬영 시간은 1시간 남짓. 학생들은 짧은 시간 동안 한 해의 소중한 인연을 되새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후 가장 근사하게 나온 1장의 사진은 학생 수만큼 인화되어 학교로 배송됩니다.

핸드폰이 대중화된 요즘, 사진을 찍는 일은 매우 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동안 머무는 학교에서 그해를 함께 보낸 선생님, 친구들과 만드는 한 컷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작은 만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행복한 학교가 다시 특별한 만남을 이끄는 선순환의 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날고, 가장 크게 웃고, 어깨동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든든한 시절, 1,584명의 학생들에게 이 사진이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2016년 어느 촬영 날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올림픽 경기장 건설로 곧 없어지게 되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학교에서의 마지막 겨울을  
남기고 싶은 선생님과 학생들을 보며  
영하의 날씨, 눈밭에서 보낸 6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매년 저는 이 캠페인을 기다립니다.  
올해는 어떤 감동적인 사연들이 도착할까요?

비상교육 사진 촬영 전문가  
김한울





비바샘 꿈지기 캠페인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담은 생애 첫 명함을 만들어주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991명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총 5,254명의 학생들에게 꿈 명함이 전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학급이나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을 비바샘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그중 다양한 사연을 선정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꿈을 수집합니다. 수집된 꿈은 비상교육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완성됩니다. 학교 선정부터 명함 기획, 디자인,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은 4주, 매월 20개 학교의 명함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중요한 공연을 앞둔 오케스트라 학생들, 퇴학별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며 달리는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 조손 가정 및 다문화 등 소외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들, 졸업 후 사회 첫발을 내딛기 위해 밤을 밝히고 있는 고3 학생들까지..... 학생들의 수만큼 비상교육의 꿈 명함도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꿈지기 캠페인에 대한 따뜻한 후기도 꾸준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선생님의 메시지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담아 제작된 꿈 명함에 기분이 들뜬 1학년 학생들의 단체 사진 등 비상교육이 차곡차곡 만나고 있는 후기는 매년 캠페인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5,254번째 학생은 이양초등학교 1학년 만학도이신 이순옥 할머니. 총 다섯 명의 1학년 학생 중 만학도 할머니 네 분의 꿈은 모두 동일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디자이너는 오랜 고민 끝에 곱게 교복을 입은 10대 소녀의 모습으로 꿈 명함을 디자인했습니다.

비상교육은 2019년에도 120개 학교에 꿈 명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구석구석 학생들의 꿈을 발견하고 응원해나가는 꿈지기가 되겠습니다.

## 비바샘 꿈지기 캠페인

# 5,254번째 학생의 꿈은 공부 잘하는 학생



## 비바샘 꿈 명함

66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이상을 공부했고 지금 광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요.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의 길로 꾸준히 달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꿈 명함은 학생들에게 보내는 비상교육의 힘찬 응원이에요. 한 땀 한 땀 제가 만든 명함이 학생들에게 멋진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라요.

출판 광고 디자이너  
김주희

99





## 비바샘 설렘꾸러미 캠페인

# 늪지 않는 헌책방 사장님이 선물하는 늪지 않는 설렘

1960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감성과 지식을 간직하고 있는  
청계천 헌책방 거리. 귀한 책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던 이곳은 세월의  
흐름 속에 20여 개 서점만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청계천 헌책방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대학생 그룹  
<책 it out>과 함께 설렘꾸러미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책 it out>은  
연세대학교 인액터스 소속으로 '설레어함', '설렘자판기' 등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상교육은 6곳의 헌책방 사장님들과 상의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설렘꾸러미를 개발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비바샘 사이트에서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책의 장르를  
선택하시면, 매월 30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설렘꾸러미를 전달합니다.  
30년 이상 전문 분야별 책을 다루어오신 헌책방 사장님들이 선생님들의  
사연과 학생들의 나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각 10권의 책을 꾸러미로  
구성합니다.

지금까지 총 140개 학교, 1,400권의 헌책이 전국 학생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던 한 권의 책이 선생님의 응원을  
담아 더욱 뜻깊은 선물이 되어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설렘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책 한 권은, 헌책방 사장님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보물 창고를  
이어갈 수 있는 나눔이 됩니다.

늪지 않는 책의 가치와 즐거움을 다음 세대로 엮어가는 일,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청계천에서 책과 함께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네요.  
서점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어릴 때부터  
만난 단골들이 희끗희끗한 머리로 꾸준히  
책을 구하러 올 때, 늘 반갑고 뿌듯합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책을 읽는다는 즐거움과  
가치는 시들지 않고 있어요. 세월이 가도  
가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될까요?  
서점주들에게는 고되고 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책의 가치예요.

학생들이 책의 외형을 떠나 그 책이 가진  
소중한 깨달음을 잘 얻길 바라요.

대광서림 서점주  
이기숙





“사진으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1년을 기록하고 싶네요.”

2015년 한 선생님의 제안으로 비상교육 학교 문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학생들이 동네를 돌며 열심히 찍은 사진들은 비상교육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나도 여행 작가> 사진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다음 해 더 많은 후배들이 더 넓은 곳을 접하며 <나도 여행 작가> 활동을 이어나갔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 여행 작가의 재능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비상교육이 만들어가는 학교 문집은 단지 소의 계층 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1, 2, 3학년 모두를 위해 계획한 시(詩)작 활동을 한 권의 시집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의 숨겨진 곳을 탐험하는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탐험일지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보드게임 전문가인 초등학교 선생님의 한 해를 따라가며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의 희로애락을 문집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의 일상이 학생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길 바라고, 학생들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문집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이 쉽지않은 않지만, 비상교육도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키자람을 합니다.

비상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하는 교과서를 만듭니다. 또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을 위한 책부터 모두를 위한 책까지, 그 한 권의 무게는 같습니다. 시간의 속도를 넘어 행복한 학교를 기억하는 일, 비상교육이 매년 나눔의 추를 엮겠습니다.

## 비상교육 학교 문집 지원

“좋은 것은  
나누는  
거라고  
엄마가 말했다”

1학년 3반  
이야기



문집을 기획하는 일은 가장 고민되고  
힘들지만 가장 설레는 작업이기도 해요.  
학생들의 표정이 살아있는 작품과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더 생생하게 남겨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곤 하죠.

앞으로 더 많은 학교와 소통하며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결과물을  
문집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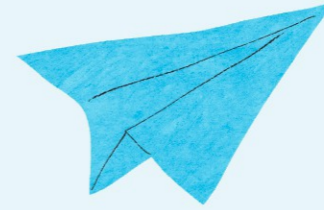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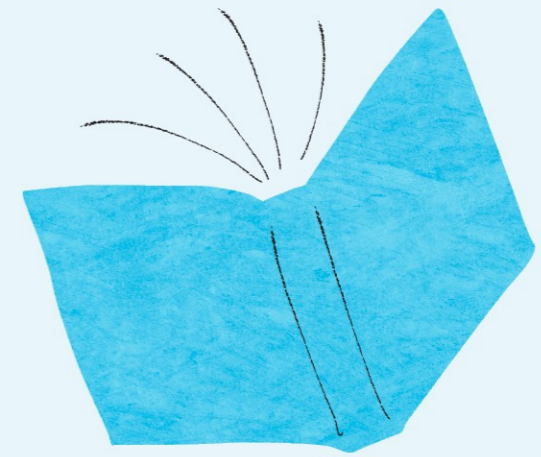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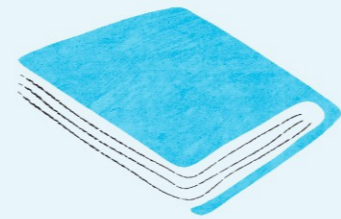
누군가의 책장에 꽂혀,  
성인이 되어서도 들춰보고 싶은,  
한 권의 책어요.

교과서 홍보 담당자  
고우정





# 교과서 속 따뜻한 세상 이야기







수화로 노래하는 법을 배워요.

초등학교 음악 5  
6. 음악, 행복을 향한 성장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노래 부르고, 수화로 표현해 봅시다.

##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 부분 2부 합창 •

보통 빠르게

한예진 작사  
김정철 작곡

즐거워- 일도 많지만- 숨 쉴 일 걱정도 많 아요-

얼어붙- 은 마음을- 따스한- 노래로 녹 여요-

우 리가- 부르는 노 래는-(랄랄라) 아름다운- 사랑의 노 래-(랄랄 라)

우 리가- 부르는 노 래는- 평화를 전 하 는 노 래 자

다 함께 모두 신 나게 노래를 불러봐요 - 우리의  
다 함께 모두 줄 주며 노래를 불러봐요 - 세상

1. 사 랑이 따스한 사 랑이 세상에 퍼지도록 - 자

2. 이렇듯 세상을 평화롭게 우리가 만 들 어 가 요

- 1 악보의 연주 순서에 유의하며 노래 불러 봅시다.
- 2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부분 2부 합창으로 불러 봅시다.
- 3 부분의 노랫말을 수화로 표현하며 노래 불러 봅시다.

**다지기**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86 6. 음악, 행복을 향한 성장

87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다음은 '수화 문화제'와 관련한 자료이다. '수화 문화제'가 어떤 행사인지 더 알아보고,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창의융합 | 도덕

# 손짓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소통, '수화' 배우기

수화는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수화를 배우면서 언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해 보자.

144 3. 언어의 다양성

수화를 이해하고 수화 문화제에도 참여해볼 수 있어요.

중학교 국어 1-2  
3. 생각을 나누는 삶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노블레스오블리주를 배워요.

고등학교 한문 I  
IV. 일화와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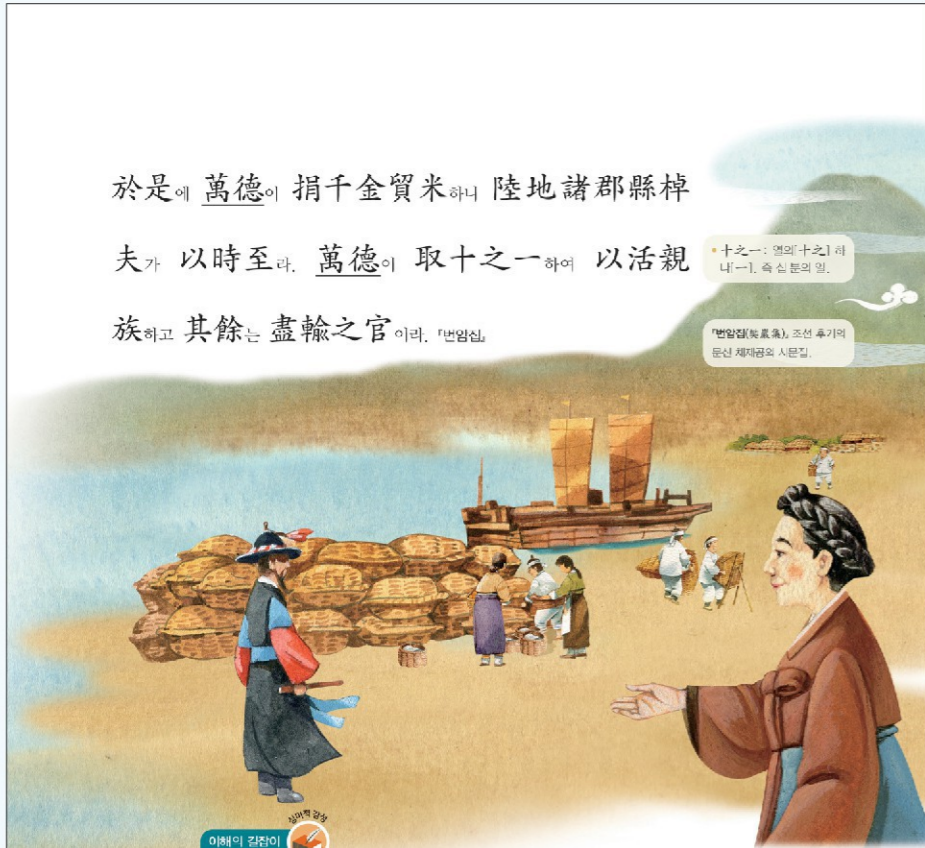
於是에 萬德이 捐千金買米 하니 陸地諸郡縣 棹

夫가 以時至라. 萬德이 取十之一 하여 以活親

族하고 其餘는 盡輸之官 이라. 『번역집』

\* 十之一: 열의 십지(一)라  
네(一). 속심(一)의 열.

『번역집(韓文集)』 조선 후기  
문신 채재림의 시문집.



이해이 감원이

조선 시대는 여성에게 사회적 제약이 많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만덕은 격주를 차려 육지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에 큰 공헌을 모았다. 김만덕은 재물을 모으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모은 재산을 기꺼이 내놓아 백성들을 살리는 데에 힘썼다. 試錄을 이겨 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開拓하였던 김만덕.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던 김만덕의 모습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배워 보자.

漸 점점	澤택	附부	獻헌	環환	境경
賃임	貫관	倉창	資지	貸대	滯체
汚오	慙은	零영	贖탈	唐당	侍시
漚비	屬속	紛분	燒소	替대	換환
점점	택은혜	부부다	헌드리다	환고리	경지경
임용상	관패다	탄탄하다	자지문	대비리다	체막하다
오더럽다	은욕심	영떨어지다. 열	탈점점시	당당하다	시모시다
비이차풍	속부리	분이저린다	소경시리다	대바꾸다	할바꾸다

11. 김만덕의 나눔 79

## MARY SEACOLE, AN UNSUNG HERO OF THE CRIMEA

• unsung  
• portrait  
• breast

A portrait of an old, dark-skinned lady wearing three medals on her left breast was discovered in 2003. An antique dealer accidentally found it behind a framed print at a garage sale in Burford, U.K. He had no idea who the lady was, and when searching for some kind of clue, he only found the author's initials written on the back side of the painting.

• auction  
• identify  
• barrier  
• contribution

After passing through various auctions, the person in the portrait was finally identified as Mary Seacole.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in London confirmed that the painting was genuine and purchased it, quoting that "as a woman and as a West Indian of mixed race, she broke many barriers to make a huge contribution to Victorian society." The portrait has been displayed there since 2004.

Q1 How was Mary Seacole's portrait found?

82

###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도덕적 문제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도덕적 민감성**이 필요하다.

• 슬기와 수정은 주말에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만났다. 도서관에 들어가려는 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았다.  
슬기: 다른 사람이 저분을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 빨리 도서관에 들어가자.  
수정: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가 부족해 드려야겠어.

위 상황에서 슬기와 수정의 행동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수정이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을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반면, 슬기는 이를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사소한 보이는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도덕적으로 비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된 일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덕적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생각이 커지는 인물 탐구 ▶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는 생명을 통시하며 살아간 인물이다. 그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다른 사람의 이롭고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배고픔과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나눔을 실천하였다. 그녀는 사랑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부모에게 미움을 받은 아이들을 위해 인도 곳곳에 어린이들의 집을 열었다. 한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면 그 아이가 차라 더 큰 사랑으로 누군가를 보살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죽이 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밥을 먹였다.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봉사를 실천하였다.

— 루치아 오시미, 『마더 테레사의 수녀』

36 I. 자신과의 관계



메리 시콜, 테레사 수녀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갈러요.

고등학교 영어 I L4. Together, We Can Do Better!  
중학교 도덕 ① I. 자신과의 관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각각의 불평등 현상에 대해 열정, 능력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사회적 약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과의 평등을 이끌어 낼 문제의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불평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든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게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개인적으로 기부나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시민 단체나 협동조합 등과 같은 지속성 있는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 해비타트 봉사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요.

고등학교 통합사회  
VI. 사회 정의와 불평등

**생생 체험** 해비타트의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 활동을 다녀오다

순간, 우물쭈물 고치기 봉사 활동에 다녀왔어? 잘 다녀왔는지 물어봐!

올 날 주로 노는 곳만 갔는데 인문 중심에 하나도 없었어.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어. 그리고, 야옹! 사육사에게 배웠고, 반찬이 수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야! 수거할 수 있는 자투리도 보여줘. 기차 봉사를 갔을 때는 자신의 배고픈 시간도 물어봐서도 기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

질문: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답: 해비타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 해비타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 해비타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

질문: 해비타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 잘 다녀왔는지 물어봐!

답: 해비타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 해비타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 해비타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

**Communication**

**Join a Volunteer Club**

동원상을 보고 두 사람이 참여할 봉사 활동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Look and Plan** 아래와 같이 봉사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세워 보세요.

Helper's Club	Green Club	Your Own Club
<p>Where: Children's Hospital</p> <p>W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ad a story Lisa</li> <li>clean the hospital room Tom</li> <li>play with the children Jack</li> </ul>	<p>Where: Green Park</p> <p>W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ant flowers Rick</li> <li>pick up trash Andy</li> <li>make a song about the earth Jane &amp; Andy</li> </ul>	<p>Where: _____</p> <p>What: _____</p>

**Role-Play** A 단계(Step A)에서 계획한 봉사 활동을 함께할 친구를 찾아보세요.

A Can you help our club at Green Park this Sunday?  
B Sure. What can I do?  
A Can you plant flowers?  
B Okay. No problem.  
A Glad to hear that. Thank you!

##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학교 영어 1  
L03. Helping Hands



**창의융합 체험** 페트병을 활용한 적정 기술

페트병을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재사용하면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페트병으로 만든 건물**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여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빛이 없는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낮에도 건물 안이 어두워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양초나 등유를 이용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이들이 화재 발생과 불을 피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을 이용한 건물이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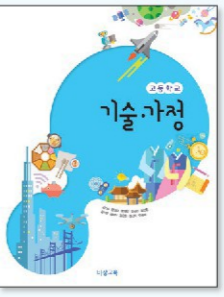
**페트병으로 만든 건물**  
페트병 안에 채지 않는 스프레이를 가득 채워 페트병까지 잘라서 단단하게 고정하여 시멘트를 바른 건고한 건물 벽이 되는게 이걸 페트병 건물이라고 한다.

**페트병에 스프레이를 넣어 파운데이션을 칠해볼 수 있고, 세련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다.**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  
비바람을 막아주고 가벼우며 저렴한 가격,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플라스틱이 많이 된다. 이 플라스틱을 잘 잘라서 옷, 가방, 신발 등을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제품보다 더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의류를 만들 수 있다.

환경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는 적정 기술에 대해 배워요.

고등학교 기술·가정  
VI.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술 적용



## 미술 활동을 통해 나눔을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미술  
I-3.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



**창의융합 활동** 프로젝트 1 주변 환경 개선 홍보 활동 - 유기 동물 보호

수익의 작은 관심과 실천은 사회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은 사회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은 사회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

- 현재 사회적 문제점을 조사하고 드러내며 홍보할 주제를 선정한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목표 계획을 세운다.
- 홍보 활동 계획에 따라 창의적 활동, 포스터 등을 준비한다.
- 기념품 판매,募捐 기부 및 온라인 서명 등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 홍보 활동을 찾아 받은 기부 후원금이나 수익금을 기부하고,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생사후를 계획한다.

**유기 동물 보호 누리과정(영양) 5차 활동 및 참여 영상 제작**

**수익금 기부 및 환경 개선**

유기 동물 보호 누리과정(영양) 5차 활동 및 참여 영상 제작

**사료기부**

유기 동물 보호 누리과정(영양) 5차 활동 및 참여 영상 제작



비상  
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일까요?







오늘도 교과서는 한 장 한 장 아이들의 손에서 숨을 쉬고, 사각사각 아이들의 생각을 담으며,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고민과 꿈을 읽습니다.  
12년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가장 가까운 책, 그래서 교과서는 가장 만들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비상교육은 교과서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단지 600여 명의 집필진과 300여 명의 개발자들, 790일의 고된 과정 때문은 아닙니다.  
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며, 책이 주는 온기로 교과서의 선한 역사를 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교과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네 가지 일,  
책으로 세상의 마음을 잇는 일, 꿈으로 교육의 미래를 엮는 일,  
나눔으로 가르침의 힘을 만드는 일, 만남으로 학교의 행복을 키우는 일,  
비상교육의 다섯 번째 '일'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모든 길에 교과서가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비상교육이 늘 흔들리지 않는 나눔의 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비상교육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7차 20층

T. 1544-0554 F. 02-6970-6148



특허 제10-1908861호

비상교육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몸에 좋은 잉크로 인쇄합니다.